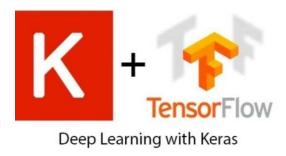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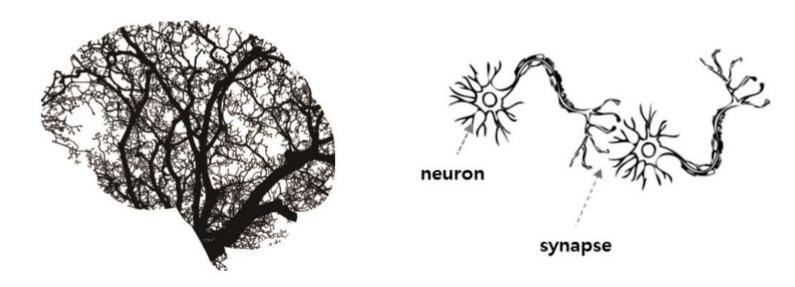
신경망의 이해

2022.0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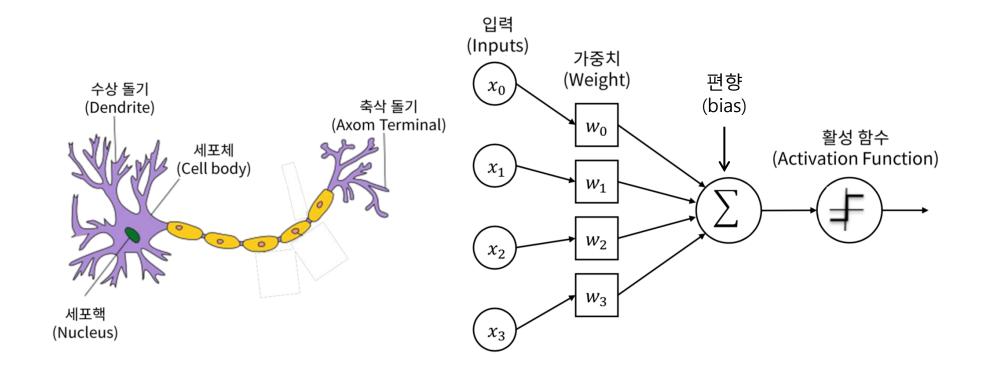


❖ 뉴런(Neuron)이란?



- 인간의 뇌는 치밀하게 연결된 약 1000억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음
- 뉴런과 뉴런 사이에는 시냅스라는 연결 부위가 있는데, 신경 말단에서 자극을 받으면 시냅스에서 화학 물질이 나와 전위 변화를 일으킴
- 전위가 임계 값을 넘으면 다음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하고, 임계 값에 미치지 못하면 아무 것도 하지 않음

❖ 뉴런과 퍼셉트론의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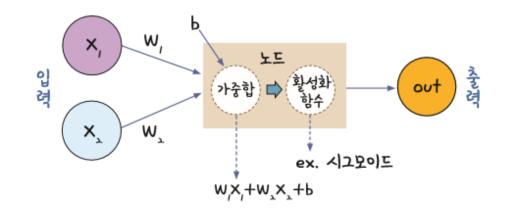


- 신경망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는 퍼셉트론(perceptron)
- 퍼셉트론은 입력 값과 활성화 함수를 사용해 출력 값을 다음으로 넘기는 가장 작은 신경망 단위

- ❖ 가중치, 바이어스, 가중합, 활성화 함수
 - 가중합

$$y = w_1 x_1 + w_2 x_2 + b$$
$$y = WX + b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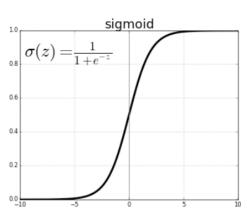
- W는 가중치를 의미하는 weight의 벡터 $W=(w_1,w_2,...,w_n)$
- b는 편향, 선입견이라는 뜻인 바이어스(bias)



■ 가중합(weighted sum):

입력 값(X)과 가중치(W)의 곱을 모두 더한 다음 거기에 바이어스(b)를 더한 값

■ 가중합의 결과를 놓고 다음 단계로 보낼 때 0과 1을 판단하는 함수가 있는데, 이를 활성화 함수(activation function) 라고 함.



❖ AND, OR, NAND gate

X ₁	X_2	AND
0	0	0
0	1	0
1	0	0
1	1	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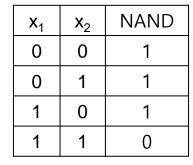


W ₁	W ₂	b	활성화 함수	
1	1	-1	step function y = 1, x > 0 $y = 0, x \le 0$	

X ₁	X_2	OR
0	0	0
0	1	1
1	0	1
1	1	1



W ₁	W ₂	b	활성화 함수	
2	2	-1	step function y = 1, x > 0 $y = 0, x \le 0$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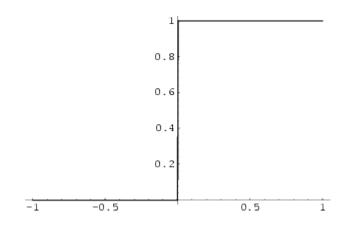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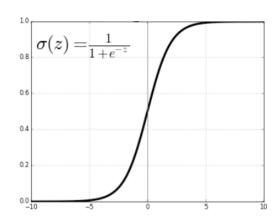
W ₁	W ₂	b	활성화 함수		
-2	-2	3	step function y = 1, x > 0 $y = 0, x \le 0$		

❖ Sigmoid 함수

heaviside step function



sigmoid function



- 신경망의 학습 원리는 미분을 통해서 weight와 bias 값을 구하는 것
- step function은 미분 불가 → 따라서 학습 불가
- sigmoid 함수

$$\sigma(x) = \frac{1}{1 + e^{-x}}$$

❖ Sigmoid 함수의 미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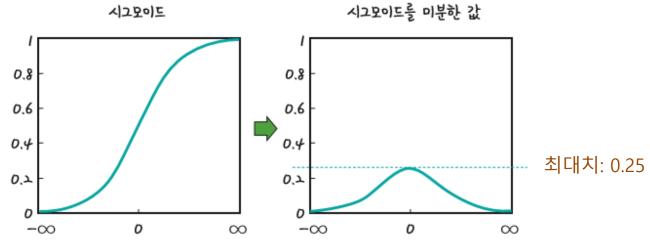
$$F(x) = \frac{1}{1 + e^{-x}} < f(x)$$

$$F'(x) = \frac{f'(x)g(x) - f(x)g'(x)}{g^{2}(x)}$$

$$= \frac{0 - (-e^{-x})}{(1 + e^{-x})^{2}} = \frac{1}{1 + e^{-x}} \frac{e^{-x}}{1 + e^{-x}}$$

$$= F(x) \frac{1 + e^{-x} - 1}{1 + e^{-x}} = F(x) (\frac{1 + e^{-x}}{1 + e^{-x}} - \frac{1}{1 + e^{-x}})$$

$$= F(x)(1 - F(x))$$



❖ 미분 공식

$$1. \ \frac{d}{dx}(c) = 0$$

2.
$$\frac{d}{dx}[cf(x)] = cf'(x)$$

3.
$$\frac{d}{dx}[f(x)+g(x)] = f'(x)+g'(x)$$

4.
$$\frac{d}{dx}[f(x)-g(x)] = f'(x)-g'(x)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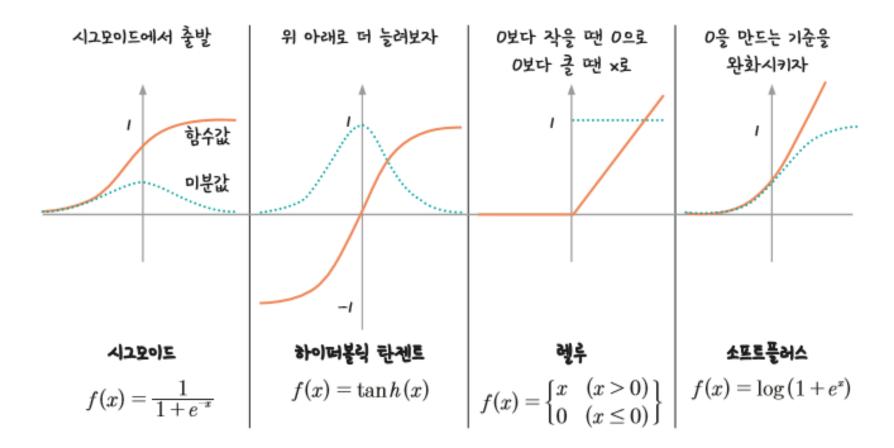
5.
$$\frac{d}{dx}[f(x)g(x)] = f(x)g'(x)+g(x)f'(x)$$
 곱셈공식

6.
$$\frac{d}{dx} \left[\frac{f(x)}{g(x)} \right] = \frac{g(x)f'(x) - f(x)g'(x)}{[g(x)]^2}$$
 나눗셈공식

7.
$$\frac{d}{dx}f(g(x)) = f'(g(x))g'(x)$$
 연쇄법칙(체인물)

$$8. \quad \frac{d}{dx}(x^n) = nx^{n-1}$$

❖ 대체 활성화 함수



- ❖ 하이퍼볼릭 탄젠트(tanh)
 - 시그모이드 함수의 범위를 -1에서 1로 확장한 개념
 - 미분한 값의 범위가 함께 확장되는 효과를 가져왔음
 - 하지만 여전히 1보다 작은 값이 존재하므로 기울기 소실 문제는 사라지지 않음
- ❖ 렐루(ReLU: Rectified Linear Unit)
 - 토론토대학교의 제프리 힌튼 교수가 제안
 - 시그모이드의 대안으로 떠오르며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
 - 렐루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모든 값을 0으로 처리하고, 0보다 큰 값은 x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. 이 방법을 쓰면 x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미분 값이 1이 됨
 - 따라서 여러 은닉층을 거치며 곱해지더라도 맨 처음 층까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음: 딥러닝의 발전에 속도가 붙게 됨

3. 출력층 설계

❖ 출력층 설계

유형	노드 갯수	활성화 함수	비고	
회귀	1	사용 안함		
이진 분류	진 분류 1 sigmoid			
다중 분류	N	softmax	One-hot Encoding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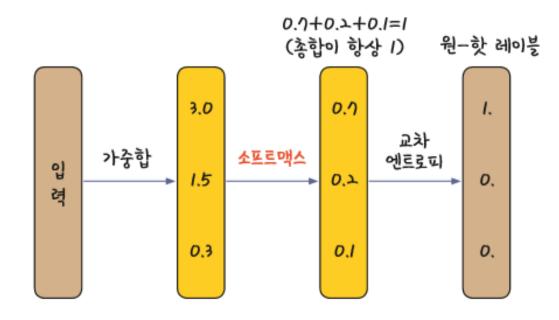
3. 출력층 설계

❖ 출력층 설계

유형	노드 갯수	활성화 함수	비고	손실 함수
회귀	1	사용 안함		mean_squared_error
이진 분류	1	sigmoid		binary_crossentropy
다중 분류	N	softmax	One-hot Encoding	categorical_crossentrop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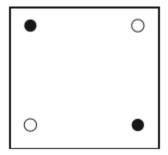
3. 출력층 설계

- ❖ 소프트맥스(Softmax)
 - 총합이 1인 형태로 바꿔서 계산해 주는 활성화 함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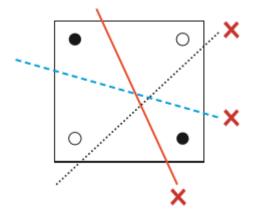
- 합계가 1인 형태로 변환하면 큰 값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작은 값은 더 작아짐
- 이 값이 교차 엔트로피(categorical cross entropy)를 지나 [1., 0., 0.]으로 변화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원-핫 인코딩 값, 즉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모두 0인 형태로 전환시킬 수 있음

❖ 퍼셉트론의 과제



- 사각형 종이에 검은점 두 개와 흰점 두 개가 놓여 있음
- 이 네 점 사이에 직선을 하나 긋는다고 하자
- 이때 직선의 한쪽 편에는 검은점만 있고, 다른 한쪽에는 흰점만 있게끔 선을 그을 수 있을까?

❖ 퍼셉트론의 과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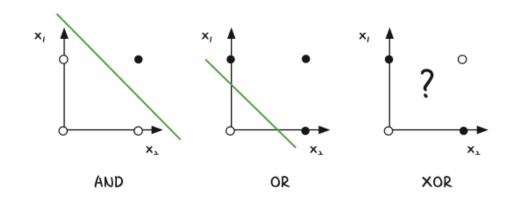
■ 여러 개의 선을 아무리 그어보아도 하나의 직선으로는 흰점과 검은점을 구분할 수 없음

❖ XOR 문제

AND 진리표				
X ₁ X ₂ 결괏값				
0	0	0		
0	1	0		
1	0	0		
1	1	1		

OR 진리표				
X ₁	X ₂	결괏값		
0	0	0		
0	1	1		
1	0	1		
1	1	1		

XOR 진리표						
X ₁	X ₁ X ₂ 결괏값					
0	0	0				
0	1	1				
1	0	1				
1	1	0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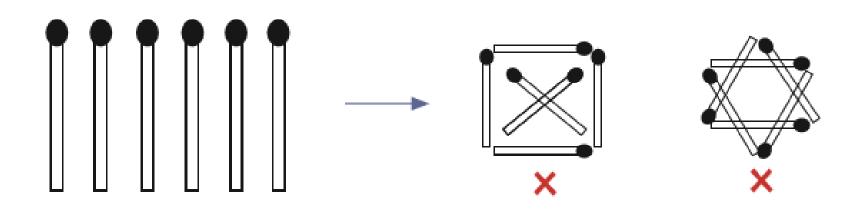


❖ XOR 문제

- 이는 인공지능 분야의 선구자였던 MIT의 마빈 민스키(Marvin Minsky) 교수가 1969년에 발표한 <퍼셉트론즈(Perceptrons)>라는 논문에 나오는 내용
- 10여 년이 지난 후에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, 이를 해결한 개념이 바로 다층 퍼셉트론(multilayer perceptron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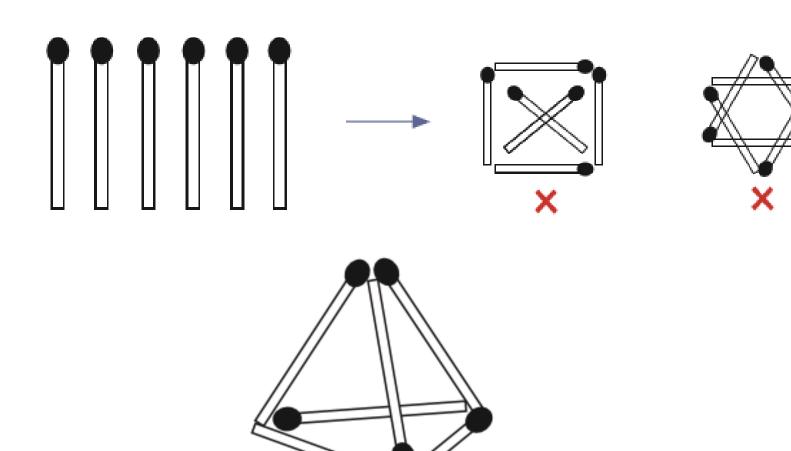
❖ XOR 문제

■ 성냥개비 여섯 개로 정삼각형 네 개를 만들 수 있는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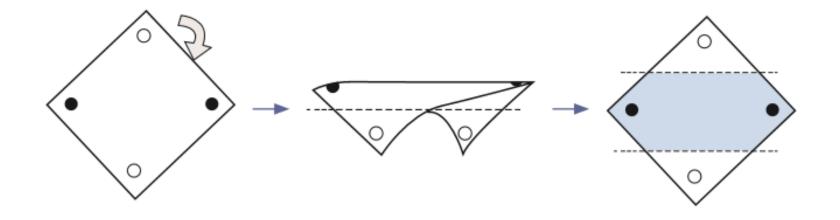


❖ XOR 문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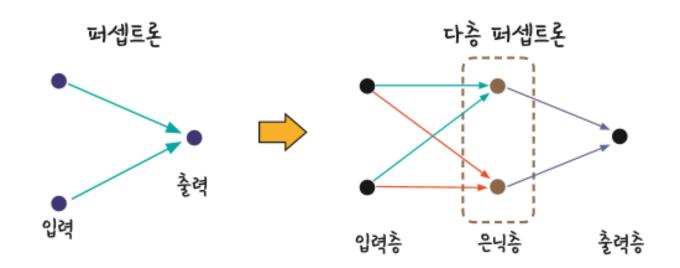
■ 성냥개비 여섯 개로 정삼각형 네 개를 만들 수 있는가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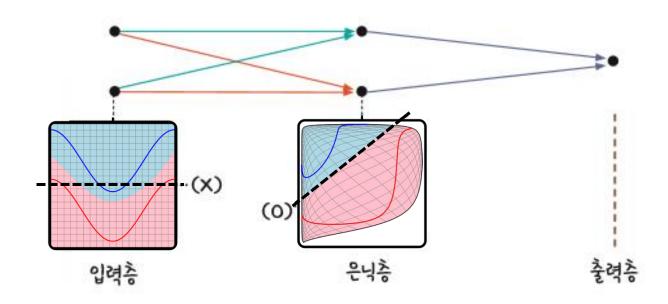
- ❖ XOR 문제 해결
 - XOR 문제 극복은 평면을 휘어주는것! 즉, 좌표 평면 자체에 변화를 주는 것



- ❖ XOR 문제 해결
 - XOR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개의 퍼셉트론을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어야 함
 -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숨어있는 층, 즉 은닉층(hidden layer)을 만들면 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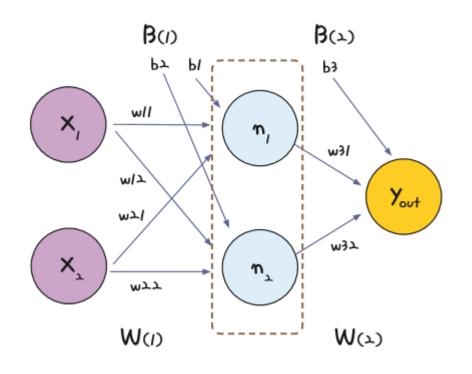


- ❖ XOR 문제 해결
 - 입력층과 은닉층의 그래프를 집어넣어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음
 - 은닉층이 좌표 평면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옴
 - → 두 영역을 가로지르는 선이 직선으로 바뀜



은닉층의 공간 왜곡(https://goo.gl/8qEGHD 참조)

❖ 다층 퍼셉트론 설계



$$n_1 = \sigma (x_1 w_{11} + x_2 w_{21} + b_1)$$

$$n_2 = \sigma (x_1 w_{12} + x_2 w_{22} + b_2)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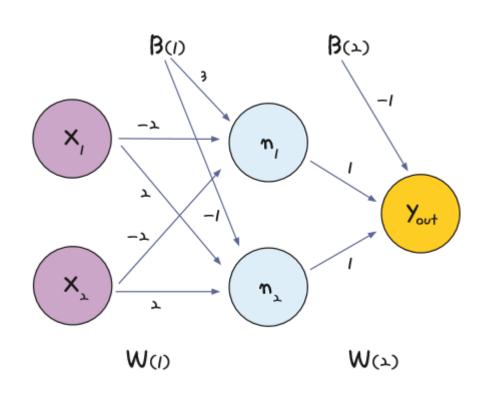
$$y_{\text{out}} = \sigma \left(n_1 w_{31} + n_2 w_{32} + b_3 \right)$$

■ 가중치 6개와 바이어스 3개가 필요함

$$W(1) = \begin{bmatrix} w_{11} & w_{12} \\ w_{21} & w_{22} \end{bmatrix}$$
 $B(1) = \begin{bmatrix} b_1 \\ b_2 \end{bmatrix}$ $W(2) = \begin{bmatrix} w_{31} \\ w_{32} \end{bmatrix}$ $B(2) = [b_3]$

- ❖ 다층 퍼셉트론 해결
 - XOR 문제를 해결을 위해 가중치 6개와 바이어스 3개가 필요함
 - 이를 만족하는 가중치와 바이어스의 조합은 무수히 많음
 - 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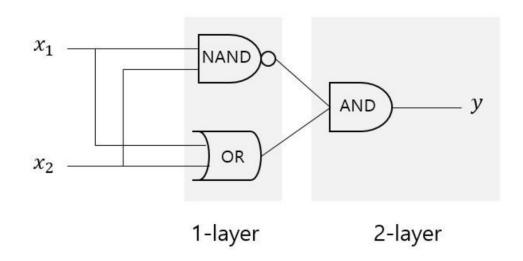
$$W(1) = \begin{bmatrix} -2 & 2 \\ -2 & 2 \end{bmatrix} \quad B(1) = \begin{bmatrix} 3 \\ -1 \end{bmatrix}$$
$$W(2) = \begin{bmatrix} 1 \\ 1 \end{bmatrix} \qquad B(2) = \begin{bmatrix} -1 \end{bmatrix}$$



❖ 다층 퍼셉트론 해결

검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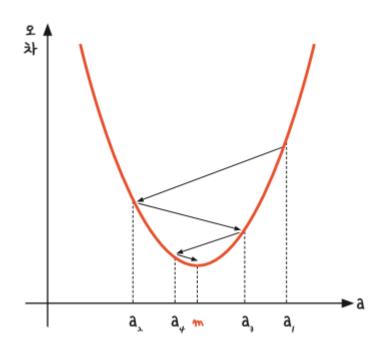
X ₁	X ₂	n ₁	n_2	y _{out}	우리가 원하는 값
0	0	$\sigma(0*(-2)+0*(-2)+3)=1$	$\sigma(0*2+0*2-1)=0$	$\sigma(1*1+0*1-1)=0$	0
0	1	$\sigma(0*(-2)+1*(-2)+3)=1$	$\sigma(0*2+1*2-1)=1$	$\sigma(1*1+1*1-1)=1$	1
1	0	$\sigma(1*(-2)+0*(-2)+3)=1$	$\sigma(1*2+0*2-1)=1$	$\sigma(1*1+1*1-1)=1$	1
1	1	$\sigma(1*(-2)+1*(-2)+3)=0$	$\sigma(1*2+1*2-1)=1$	$\sigma(0*1+1*1-1)=0$	0



- ❖ 오차 역전파(Back Propagation) 개념
 - 최적화의 계산 방향이 출력층에서 시작해 앞으로(뒤에서 앞으로) 진행됨
 → 오차 역전파(back propagation)라고 부름
 - 경사 하강법 → 입력과 출력이 하나일 때, 즉 '단일 퍼셉트론'일 경우
 - 은닉층(Hidden Layer)이 있는 경우에는? 구해야 할 가중치(w)와 바이어스(b)는?
 - 단일 퍼셉트론에서 결과값을 얻으면 오차를 구해 이를 토대로 앞 단계에서 정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
 - 다층 퍼셉트론 역시 결과값의 오차를 구해 이를 토대로 하나 앞선 가중치를 차례로 거슬러 올 라가며 조정해 감

❖ 경사 하강법

- 기울기가 0인 점을 찾는 방법
 - 1) a₁에서 미분값을 구한다.
 - 2) 구해진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얼마간 이동시킨 a_2 에서 미분값을 구한다.
 - 3) 위에서 구한 값이 0이 아니면a₂에서 2)번 과정을 반복한다.
 - 4) 그러면 그림처럼 이동 결과가 한 점으로 수렴함
- 경사 하강법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a를 변화시켜서 m의 값을 찾아내는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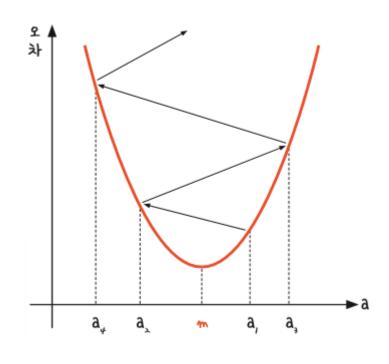


기울기가 0인 점 m을 찾는 방법

❖ 경사 하강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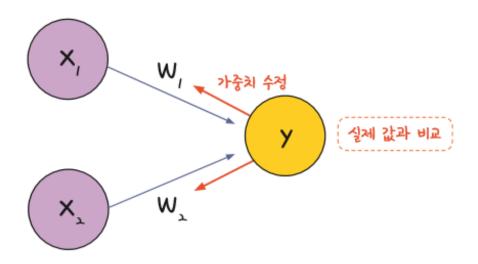
- 학습률
 - 기울기의 부호를 바꿔 이동시킬 때 적절한 거리를 찾지 못해 너무 멀리 이동시키면
 a 값이 한 점으로 모이지 않고 위로 치솟아 버림
 - 어느 만큼 이동시킬지를 정해주는 것
 → 학습률(Learning Rate)

$$a_{n+1} = a_n - \eta f'(a_n)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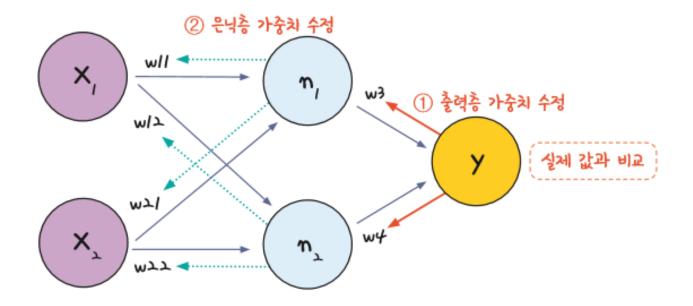


학습률을 너무 크게 잡으면 한 점으로 수렴하지 않고 발산함

- ❖ 오차 역전파 개념
 - 단일 퍼셉트론에서의 오차 수정



- ❖ 오차 역전파 개념
 - 다층 퍼셉트론에서의 오차 수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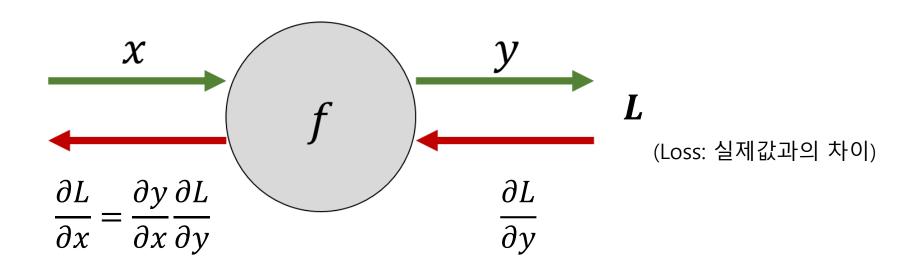
❖ 오차 역전파 개념

- 오차 역전파 구동 방식
 - 1) 임의의 초기 가중치(w₍₁₎)를 준 뒤 결과(y_{out})를 계산한다.
 - 2) 계산 결과와 우리가 원하는 값 사이의 오차를 구한다.
 - 3) 경사 하강법을 이용해 바로 앞 가중치를 오차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업데이트한다.
 - 4) 1)~3) 과정을 더이상 오차가 줄어들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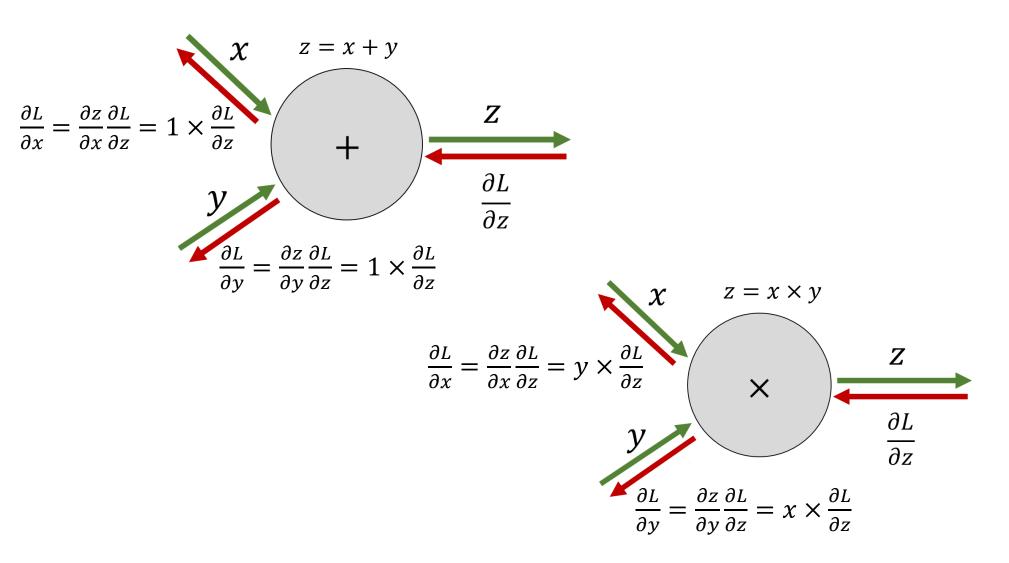
■ 해설

- '오차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업데이트한다'는 의미는 미분 값이 0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말
- 즉, '기울기가 0이 되는 방향'으로 나아가야 하는데, 이 말은 가중치에서 기울기를 뺐을 때 가중치의 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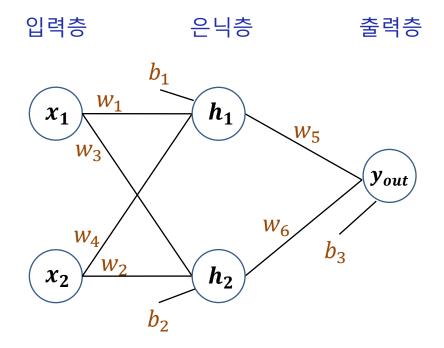
- ❖ 수식으로 표현
 - 편미분 체인 룰(Chain rule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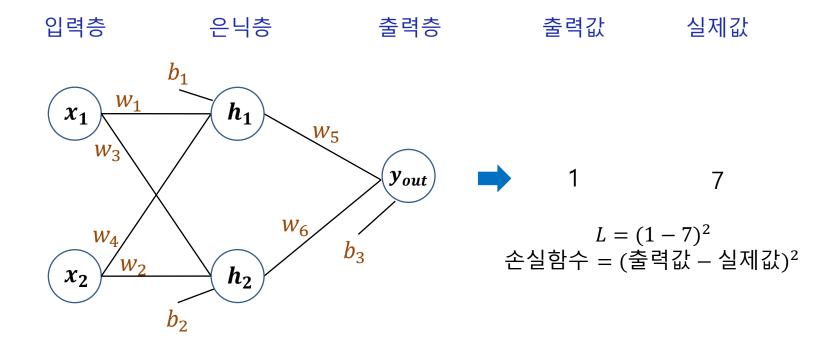
❖ 수식으로 표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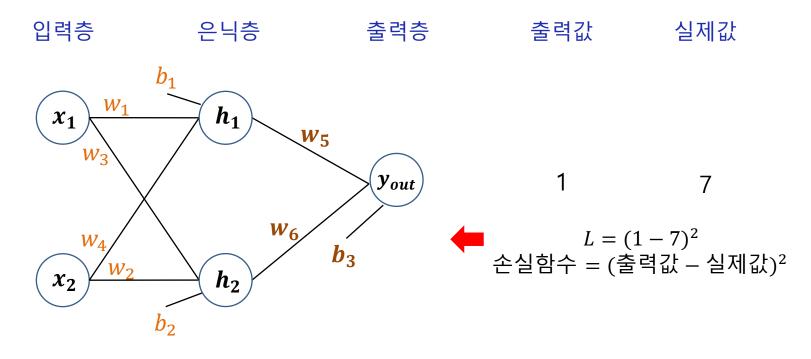
- ❖ 오차 역전파 예
 - 은닉층이 1개 있는 네트워크, 임의의 가중치와 편향 값을 지정



- ❖ 오차 역전파 예
 - ① 입력값을 넣은 후 출력값과 실제값을 손실 함수에 적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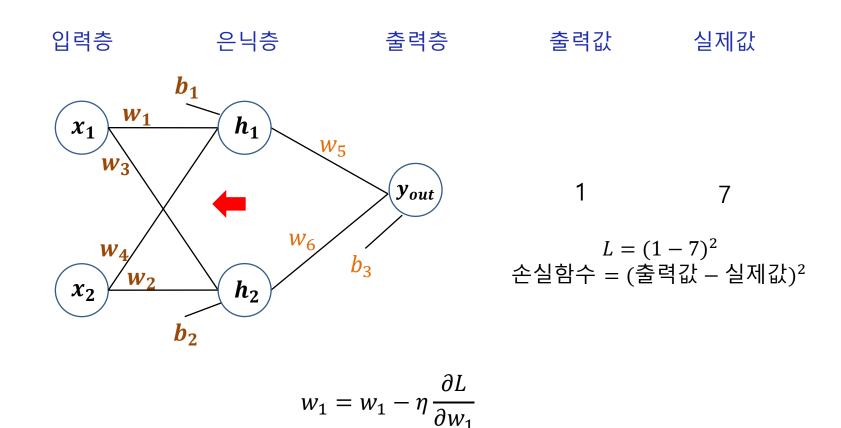
- ❖ 오차 역전파 예
 - ② 출력층의 가중치(weight)와 편향(bias) 수정



$$w_5 = w_5 - \eta \frac{\partial L}{\partial w_5}$$

새로운 $W_5 = 기존 W_5 - 학습률 * 손실함수를 <math>W_5$ 로 편미분한 값

- ❖ 오차 역전파 예
 - ③ 은닉층의 가중치(weight)와 편향(bias) 수정



새로운 $w_1 = 기존 w_1 - 학습률 * 손실함수를 <math>w_1$ 으로 편미분한 값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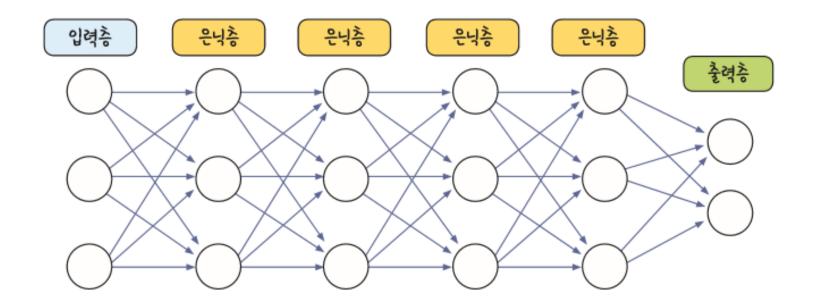
- ❖ 오차 역전파를 통한 학습의 원리
 - ①,②,③의 과정을 1 Epoch라고 함
 - Epoch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최적화된 가중치와 편향을 구할 수 있음
 - 최적화된 가중치와 편향을 구하게 되면 출력값이 실제값에 근접하게 됨

❖ 문제점

- 수치 미분으로 가중치/편향 갱신시 많은 시간이 소요됨
- 수치 미분대신 행렬 연산으로 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이 개발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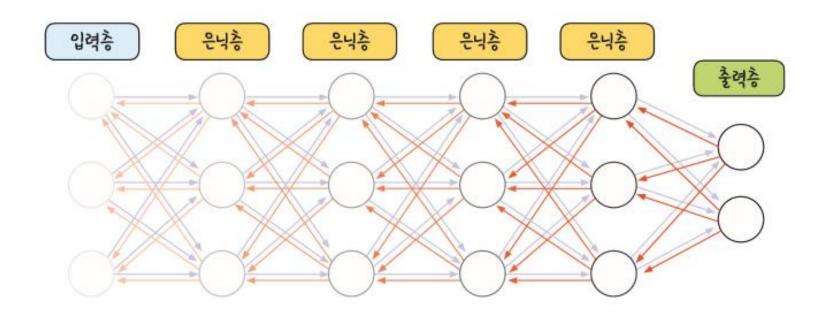
(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FmVh2qrev0Q&t=36s&ab_channel=NeoWizard 참조)

- ❖ 기울기 소실 문제
 - 다층 퍼셉트론이 오차 역전파를 만나 신경망이 되었고, 신경망은 XOR 문제를 가볍게 해결
 - 하지만 기대만큼 결과가 좋아지지 않았음
 - 이유가 무엇일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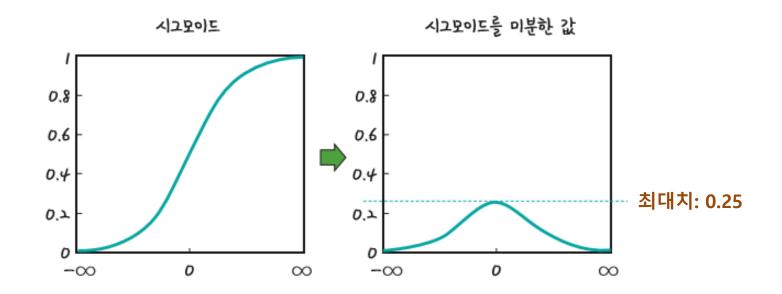


❖ 기울기 소실 문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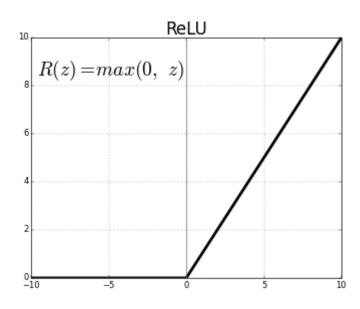
- 오차 역전파는 출력층으로부터 하나씩 앞으로 되돌아가며 각 층의 가중치를 수정하는 방법
- 가중치를 수정하려면 미분 값, 즉 기울기가 필요하다고 배움
- 그런데 층이 늘어나면서 기울기가 중간에 0이 되어버리는 기울기 소실(vanishing gradient)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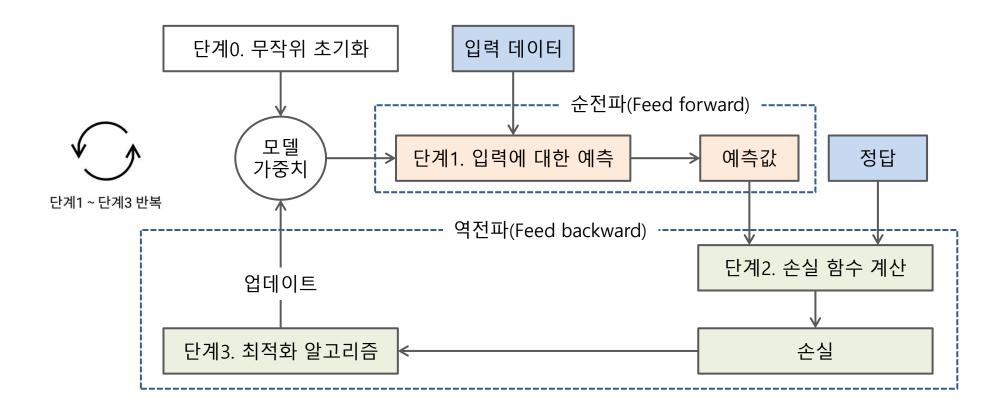
- ❖ 기울기 소실 문제와 활성화 함수
 - 이는 활성화 함수로 사용된 시그모이드 함수의 특성 때문임
 - 아래 그림처럼 시그모이드를 미분하면 최대치가 0.25
 - 1보다 작으므로 계속 곱하다 보면 0에 가까워짐
 - 따라서 층을 거쳐 갈수록 기울기가 사라져 가중치를 수정하기가 어려워지는 것



- ❖ 기울기 소실 문제 해결 방안
 - 렐루(ReLU: Rectified Linear Unit)
 - 토론토대학교의 제프리 힌튼 교수가 제안
 - 시그모이드의 대안으로 떠오르며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
 - 렐루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모든 값을 0으로 처리하고, 0보다 큰 값은 x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. 이 방법을 쓰면 x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미분 값이 1이 됨
 - 따라서 여러 은닉층을 거치며 곱해지더라도 맨 처음 층까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음: 딥러닝의 발전에 속도가 붙게 됨



❖ 학습 과정



❖ 종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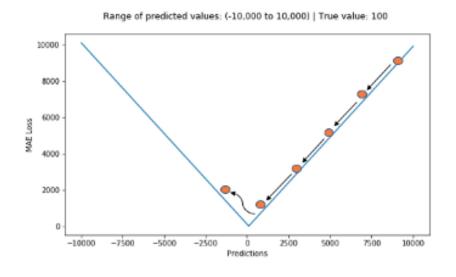
* 실제 값을 yt, 예측 값을 yo라고 가정할 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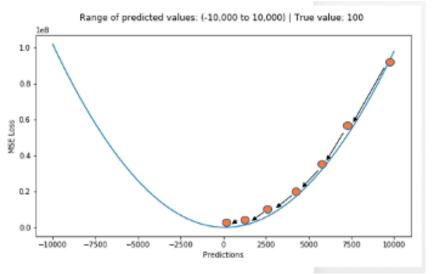
평균 제곱 계열	mean_squared_error	평균 제곱 오차	
		계신: mean(square(yt - yo))	
	mean_absolute_error	평균 절대 오차(실제 값과 예측 값 차이의 절댓값 평균)	
		계신: mean(abs(yt - yo))	
	mean_absolute_percentage_error	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(절댓값 오차를 절댓값으로 나눈 후 평균)	
		계산: mean(abs(yt - yo)/abs(yt) (단, 분모 ≠ 0)	
	mean_squared_logarithmic_error	평균 제곱 로그 오차(실제 값과 예측 값에 로그를 적용한 값의 차이를	
		제곱한 값의 평균)	
		계신: mean(square((log(yo) + 1) - (log(yt) + 1)))	
교차 엔트로피 계열	categorical_crossentropy	범주형 교차 엔트로피(일반적인 분류)	
	binary_crossentropy	이항 교차 엔트로피(두 개의 클래스 중에서 예측할 때)	

- ❖ 평균 제곱 계열
 - 평균 절대 오차(MAE: Mean Absolute Error)
 - 평균 제곱 오차(MSE: Mean Squared Error)

$$MAE = \frac{1}{N} \sum_{i=1}^{n} |\hat{y_i} - y_i|$$

$$MSE = \frac{1}{N} \sum_{i=1}^{n} (\hat{y_i} - y_i)^2$$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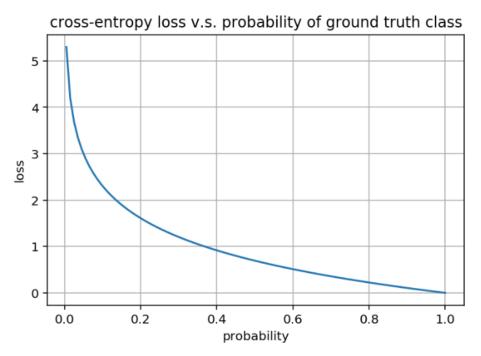
- ❖ 교차 엔트로피 오차(Cross entropy error)
 - 정보 이론에서 두 확률분포 사이의 거리를 재는 방법
 - 데이터가 신경망을 거쳐 나온 확률 벡터(예측값)
 - 라벨을 원 핫 인코딩하여 나온 확률 벡터(실제값)

$$E = -\sum_{k} t_k \log y_k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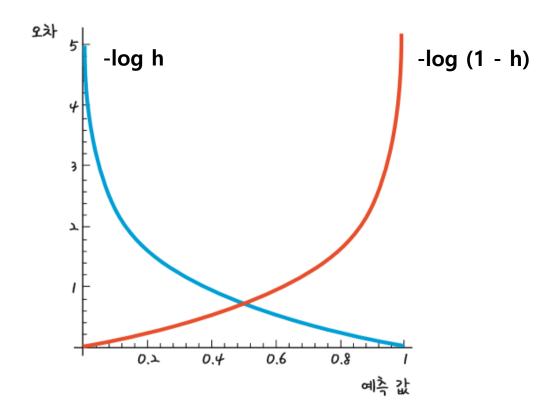
 y_k : 신경망이 k라고 예측한 확률

 t_k : 라벨을 원 핫 인코딩한 후 k번째 좌표

라벨이 k_{θ} 라고 하면 $E = -\log y_{k_0}$



Binary Crossentropy



■ y의 실제 값이 1일 때 -log h 그래프를 쓰고, 0일 때 -log (1 - h) 그래프를 써야 함

$$-\{y\log h + (1-y)\log(1-h)\}$$

❖ 출력층 설계

유형	노드 갯수	활성화 함수	비고	손실 함수
회귀	1	사용 안함		mean_squared_error
이진 분류	1	sigmoid		binary_crossentropy
다중 분류	N	softmax	One-hot Encoding	categorical_crossentropy